

익산캠퍼스 축소 계획 철회

정현을 시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만나 유감 표명... 정치권도 한목소리 전북대 측, 소통 없는 일방적 계획 수립 사과... 정원 유지에 힘 모아야

익산시와 전북대학교가 '익산캠퍼스 정원 축소 계획'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3일 전북대학교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만나 익산 캠퍼스 축소 계획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국회의원(익산)과 이춘석 국회의원 당선인(익산)도,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 시장은 양 총장에게 "익산캠퍼스는 2007년 전북대와 익산대학을 통합하며 만들어진 우리 익산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히 익산대학의 전신인 100년 전통의 이라농림학교는 전북대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대의 지역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이 이뤄진 만큼 축소를 결정하기 전에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수적이었다고 전북대는 단 한 마디의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일방적인 모습은 우리 27만 익산 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여겨진다"고 질타했다.

이춘석 당선인은 "됐다 했는 것만큼 상처가 되는 일이 없는 건데 우선은 익산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면서 "지역 대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절차나 추진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와 아무런 상의하지 않은 모습이 시민 입장에서 뒤통수 맞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 시민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수 의원은 "지역에서는 발전을 꿈꾸는 그림에 항상 대학을 포함하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결국은 같은 목적을 향해 가야 하는 두 집단이 마음을 모아 소통해야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현실적인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시장은 양 총장 등 전북대 관계자들에게 익산시민들이 이라농림학교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과 이번 사태로 인해 느끼는 허탈함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또 학생대 폐지를 통한 감축 계획을 우선 철회하고, 익산 캠퍼스 활성화 대책을 함께 수립하자

고 제안했다.

전북대 측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양오봉 총장은 "일부 학과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익산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을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지역사회와 미처 소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학생 인구 감소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원 유지를 위해 익산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답했다.

한편 전북대는 2007년 익산대학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익산캠퍼스를 만들었다. 당시 전북대는 익산대의 농학계열학과를 환경생명자원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전북대 수의대를 익산 캠퍼스에 두겠다고 합의문을 통해 약속한 바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서동축제로 추억 만들어 볼까

익산시, 5월 3~6일 연휴...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 주제

가정의 달인 5월 첫 주말 연휴를 맞아 2024 익산서동축제가 관광객 몰이에 나선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익산서동축제는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서동공원 일원에서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올해는 서동축제의 공간적 확장을 위해 무왕 제례와 시민참여 퍼레이드, 서동 선발대회 등 개막행사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

우선 개막일인 5월 3일 익산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왕제례'와 고취대, 기마장군, 무왕 행차 가마 등 백제 30대 무왕의 행렬을 시민들과 함께 재현하는 '무왕 행차 퍼레이드'가 성대 한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퍼레이드는 시민 1,000여 명이 다채로운 가와 재능을 사람들 앞에서 맘껏 펼치며 다 함께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시간 익산서동



축제의 주인공인 서동을 찾는 '서동선발대회'가 동시에 진행된다. 선발된 서동은 즉위식을 열고 축제 개막을 선포한다.

이어 김수환과 신인선 설화수, 할리퀸, 영유 철희, 투가이즈 등 가수들이 축하공연 무대에 올라 흥을 돋울 예정이다.

개막 다음 날인 5월 4일부터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서동공원 일원에서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관광객 눈을 사로잡는다. 백제 유등과 금마 저수지를 배경으로 하는 야간경관 전시는 이미 서동 축제를 대표하는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50만원 지원

익산시가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 환급을 실시한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다.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150만 원)를 1인당 2개 사업장까지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액 중 30만 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며, 30만 원 초과~150만 원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으로 지급한다. 공고일 전 폐업했거나 유흥·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비

롯한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4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익산시 누리집에 접속한 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초기 혼잡을 피하고자 첫 열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 29일에는 끝자리 9, 30일에는 끝자리 0인 사업자가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후 5월 9일부터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자격과 매출액 등을 검토하고 6월 초부터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군산시, 시설 입소 가능성 높은 재가 장애인 자립 위해

군산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 이어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들도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장애인 시설·학대 피해 센터·단기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 의지가 확고한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호자 부재(사망 등)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지원받는 독립 장애인에게는 개인별 자원계획을 수립해 자립 지원 인력제공 및 주거환경개선, 자립장착금(1인당 1천만 원 이내),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자립을 위한 정착·주거·돌봄·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자립 의사는 있으나 장기간 독립생활을 하지 못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 등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는 4월부터 단기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립 희망 장애인 발굴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불변 없이 살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센터(운영법인·사회복지법인 나눔세상)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 후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4명의 시설 장애인과 1명의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 바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 개최

군산시는 24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인증사회적기업 24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선 △기업 현황 △사회적 목적 재투자 △재정 성과 △고용현황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지역사회 공헌내역 등의 주요 내용을 작성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4월 말, 10월말 2회에 걸쳐 온라인사업보고서를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ark)을 통해 제출하여야만 한

다. 이는 기업이 인증 취지와 인증요건에 따라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모 사회적기업 대표는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 지원해주는 사전검토 과정이 축소되어 사업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컸다. 다행히도 군산시에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축제 안전 확보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익산시가 대규모 방문객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2024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규모 행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4일 익산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장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다음 달 3일 개최 예정인 2024년 익산 서동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및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다중운집에 따른 행사장 인파사고 예방대책, 안전관리 요원 배치계획,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소홀한 없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대책 일환으로 행사 전날에는 안전관리지원단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4년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총회 개최

군산시는 2024년도 군산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제8기, 위원장 나윤만) 총회를 지난 23일 개최하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군산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6개분과(자치행정, 경제해양, 문화체육관광, 복지환경, 건설교통, 농정상하수도), 5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월에 출범해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3년 시민참여예산 운영성과 보고 △20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보고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등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